**경건하고 지혜로운 언어생활**

**<야고보서 3장 1-18절>**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은 우리들의 언어생활에 대해 성경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상고해보기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모두 말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효력을 묘사하는 속담들입니다.

성경 잠언에도 말에 관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씀합니다.

한편 잠언 10장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듯 말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말을 적절하고 유익하게 사용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내가 한 말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혀본 적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한 누군가가 나에 대해 무분별하게 한 말 때문에 마음 상해본 적 없는 이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로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 속에는 말에 주의하며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 덩치 큰 말들을 손쉽게 제어합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맘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입에 재갈이나 배의 키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작지만 실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작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실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대단한 잠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자기 혀 하나를 길들이는 일이 우리 인간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점입니다.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각자의 입 속에서 활동하는 그 작은 혀를 절대 만만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길들여 제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에게 길들여져 끌려 다니는지, 각자 성찰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절에, 혀는 불과 같다고 합니다.

작은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사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내부와 외부의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에 영향 받아 손쉽게 불의를 행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인격과 생활 전체를 비참하게 더럽힐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위험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순적이고 기만적인 상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내 형제자매를 또한 저주하다니, 참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

물론 우리 중 대부분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 상황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안 좋은 기억을 쉽게 털어버리지 못하며, 그 불편한 관계를 쉽게 변화시켜가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 때문에 초래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사울 왕에게 무고하게 쫓겨야 했던 다윗이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상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울어야 했는지 우리는 그의 시편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시편 70:1-2)

그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솔직한 대면과 더불어 그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입술로나 행동으로 범죄치 않겠다는 그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7:1-3)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서서, 결코 입으로 범죄치 않겠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시편 19편에서 또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옳은 지를 밝혀 억울함을 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하실 일이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힘쓰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려 하기도 하고, 자기 지혜로 귀찮은 상황이나 존재를 빨리 처리해 버리려 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지혜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는 그 지혜 자랑을 더 조급하고 과격하게 수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거리가 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속에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기 지혜로 한 언행이 실상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 심지어 진실에서 벗어난 거짓말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일면이 마치 그의 전체를 말해주는 듯 과장되게 인식하여 모든 것을 그 안경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때 그런 오류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다른 누군가에게 섣불리 그의 험담을 늘어놓는 일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들은 사람은 그 편파적인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여 누군가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되는 상황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로운 정보와 편견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에게는 본문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지혜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즉 ‘겸손함과 신중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굴레 씌우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혜’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말하려는 욕망을 억제하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겸손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결함’입니다.

이것은 동기의 순수함을 뜻합니다.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과 타인에 대한 시기심에서 벗어나 순수한 동기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화평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반해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갈등상황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가려는 의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세 번째 특징은 ‘관용’입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를 내려놓고 타인의 약함과 다름을 너그러이 용납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네 번째 특징은 ‘양순함’입니다.

타인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필요하다면 기꺼이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다섯 번째 특징은 ‘긍휼’입니다.

무력하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같은 입장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여섯 번째 특징은 ‘’선한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참된 지혜는 결국 선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일곱 번째 특징은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명정대 하고자 하는 것, 사람을 외모나 출신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여덟 번째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속이거나 허위주장을 하지 않는 것, 즉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직함입니다..

이 모두를 종합하자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은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화평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경책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 분별력을 얻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잠언 17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처럼, 타인에 대한 험담과, 그것을 거듭 말하며 퍼뜨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또한,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 31장 8-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처럼, 억울하고 힘없는 자들을 변호하는 말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 전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참 지혜의 길로 나아가며 경건하고 지혜로운 언어생활을 다같이 실천합시다!

이 일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언어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혀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혀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에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언어생활로 다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경건하고 지혜로운 언어생활을 실천하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평화를 이루는 일로 부름 받은 온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